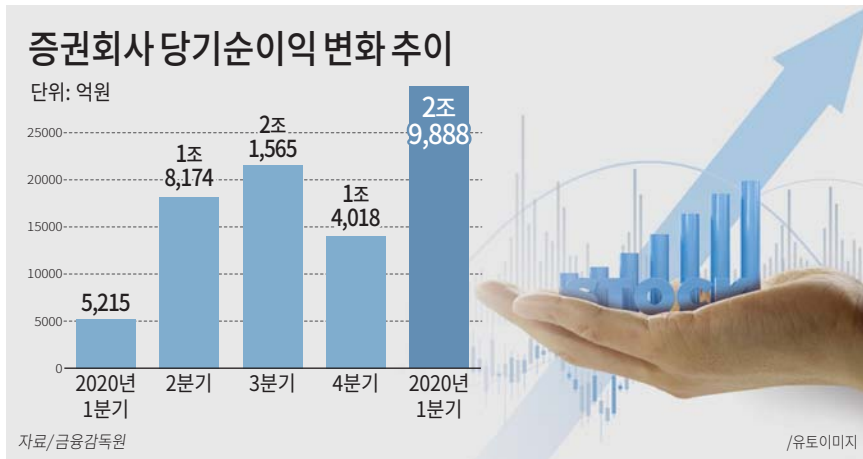


# ‘수수료 잔치’ 증권사, 1분기 순이익 3조 육박

증권사 57곳 순이익 2조9888억  
수수료수익 전분기비 24.5% ↑  
자기매매이익 60% 가까이 늘어  
순자본비용, 전체 평균 719.9%



올해 1분기에 국내 57곳 증권회사의 순이익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시 활황 등의 영향으로 수수료 수익과 자기매매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3일 내놓은 ‘2021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증권사 57곳의 1분기 순이익은 2조9888억원으로 전 분기(1조4018억원) 대비 113.2%(1조5870억원) 증가했다. 지난 3월 31일 인가를 받은 한국아이엠씨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1분기 전체 수수료수익은 4조547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959억원(24.5%) 증가했다.

수탁수수료는 2조521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689억원(36.1%) 증가했는데, 이는 유가증권 시장과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은행(IB) 부문 수수료는 1조207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33억원(5.5%),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는 331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73억원(20.9%) 늘었다.

자기매매손익은 1조81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047억원(59.8%), 기타자산 손익은 1조561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69억원(2.4%) 증가했다.

증권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4.4%로 전년 동기

(0.9%) 대비 3.5%포인트 상승했다.

자기자본은 69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67조8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2.7%) 증가했다.

증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용은 전체 평균 719.9%로 전 분기 말 698.6% 대비 21.3%포인트 상승했다.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 8곳의 순자본비용은 1609.4%로 28.7%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순자산액(자본총계) 증가로 영업용순자본이 증가해서다.

한편 1분기 선물회사 4곳의 당기순

이익은 111억원으로 전 분기(48억원) 대비 63억원(131.0%) 증가했다. 이는 수탁수수료 수익 142억원(46.1%)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선물회사의 ROE는 2.3%로 전년 동기(2.6%)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증권회사 순이익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활황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했다”며 “다만 수수료수익 중 IB와 자산관리 부문의 비중은 축소되고, 수탁수수료에 편중되는 모습이다. 향후 주식시장 침체, 대내외 경기불안 등에 따라 투자자 이탈 시 증권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국내·외 주식시장 등 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이 증권회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한국투자증권 연 6.6% 추구 ELS 100억원 한도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0일까지 삼성전자, 네이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멀티 리자드형 ‘TRUE ELS 14119회’를 총 10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스텝다운 구조 추가연계증권(ELS)로 6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가의 92%(6개월), 90%(12개월), 87%(18개월), 82%(24개월), 80%(30개월), 77%(36개월) 이상일 경우 연 6.6%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또한 두 번의 리자드 옵션을 통한 조기상환 기회도 제공된다. 설정 후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6개월간 87%, 12개월간 82% 미만인 적이 없다면 연 6.6%의 수익과 함께 자동 조기상환 된다.

만기까지 모든 상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기준가의 52%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총 19.8%(연 6.6%)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52%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77% 미만인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송태화 기자 alvin@

# 이달 지방광역시 1.2만여 가구 쏟아진다

대구 7081가구, 부산 3991가구 등  
지난달 일반분양 물량 대비 급증

이달 지방 광역시에서 아파트 1만 5780가구가 쏟아진다.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지방 광역시에서 19곳(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만 5780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만 20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역별로는 ▲대구 7081가구 ▲부산 3991가구 ▲대전 613가구 ▲광주 365가구 등이다. 이는 지난달 일반분양 물량(2579가구) 대비 크게 늘었다.

현재 지방 광역시 분양 시장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물 자료에 따르면 지방 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의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지난해 4분기 99.1%, 올 1

〈지방 광역시 6월 주요 분양 아파트〉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	총가구수 (일반분양)	건설사	
대구	북구 노원동 288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78~84 84(OT)	568	대우건설
	동구 용계동 588-3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59~99		
	중구 동인동1가 211	힐스테이트 동인	84 83(OT)	1,009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13 금정구 장전동 511-2	래미안 포레스티지	49~132	4,043 (2,331)	삼성물산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기는 100%를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 광역시의 분양 시장은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신규 단지 인기가 뚜렷하다”며 “새 아파트에 목마른 수요자가 많아 신규 단지의 인기는 앞으로 지속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주요 물량으로 대우건설이 대구 북구 노원동 288 일대에서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를 분양한다. 단지는 아파트 499가구와 오피스텔 69실 등 568가구로 조성된다. 대구 북구와 서구

생활권을 모두 누리는 입지에 위치하며, 북대구IC, 서대구IC, 신천대로 등을 통해 대구 전역은 물론 대구 외곽지역까지 접근이 용이하다.

대우건설은 대구에 1개 단지를 더 공급한다. 대구 동구 용계동 588-3 일원에서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59~99㎡, 1313가구를 분양한다. 전 가구가 판상형에 남향 위주로 일부 가구에선 급호강 조망이 가능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11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동인’ 84㎡ 아파트 941가구와 전용면적 83㎡ 오피스텔 68실 등 1009가구를 분양한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과 중앙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구 지하철 1호선·경부선 대구역도 인접해 있다.

삼성물산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포레스티지’ 39~147㎡, 4043가구 중 조합원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49~132㎡, 233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 BNK자산운용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하이일드펀드 7일 출시

BNK자산운용이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과 함께 하이일드채권에 투자해 기대 수익률까지 높인 ‘BNK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를 오는 7일 출시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을 45%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공모주식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이일드펀드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2023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하이일드펀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BNK자산운용은 올 하반기 공모주 시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에스디바이오센서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대어급 기업공개(IPO)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공모주 펀드를 찾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공모펀드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BNK자산운용은 이번 공모펀드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은 뒤 소프트웨어를 통해 펀드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BNK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는 BNK금융그룹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비롯해 일부 시중은행 및 다수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는 출시 이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NK자산운용 관계자는 3일 “공모주 청약에 직접투자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에게 하이일드펀드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 KB증권, ‘천연가스 선물 ETN’ 2종 신규 상장

뉴욕거래소 천연가스 선물일  
수익률의 1배, -1배 추종 상품

KB증권이뉴욕상품거래소(NYMEX)에 상장돼 있는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증권(ETN) 2종을 신규 상장한다.

천연가스는 석유, 석탄에 이은 세계 3대 에너지원이다. 글로벌 지수사업자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다우존스인디시즈(S&P Dow Jones Indices)사는 해당 선물을 활용해 천연가스에 정방향 및 역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다우존스 천연가스 선물 지수(Dow Jones Co

mmodity Index Natural Gas TR)와 다우존스 천연가스 인버스 선물 지수(Dow Jones Commodity Index Natural Gas Inverse TR)를 산출하고 있다.

KB증권은 해당 지수를 기초지수로 뉴욕상품거래소 천연가스 선물일간수익률의 1배를 추종하는 ‘KB 천연가스 선물 ETN(H)’과 -1배를 추종하는 ‘KB 인버스 천연가스 선물 ETN’ 신규 ETN 2종을 출시했다.

총 보수는 ▲KB 천연가스 선물 ETN(H)은 연 0.61% ▲KB 인버스 천연가스 선물 ETN은 연 0.71%로 매일 최

종지표가치(IV)에 일할 반영된다. 제비용 내에 운용보수 및 헤지비용을 낮춰 업계 최저 수준이다.

두 상품은 각각 만기 5년으로 상장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 거래가 가능(예정)하며, 이후 상장폐지된다. 발행 수량은 KB 천연가스 선물(H)은 100만 주, KB 인버스 천연가스 선물 ETN은 50만주이고, 매월 5번째 영업일부터 9번째 영업일까지 매일 20%씩 정산가 기준으로 롤오버를 진행한다.

김호영 KB증권 에퀴티(Equity)본부장은 “이번 신규 상장 ETN 2종은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활용 가능하며 기



존 상장되어 있는 상품보다 제비용을 낮춰 업계 최저수준인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객들의 투자 니즈에 맞춰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